

도-시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다짐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 ... 전북발전에 한목소리 김관영 도지사 "도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전북자치도 함께 만들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임실군수)와 심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2년 7월 민선 8

기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올 연말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협조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확대 협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시·군 협력추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 동참 협조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벌였다.

또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전 시·군 확산을 통해 전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시·군 우수사례로, 제94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소상공인, 음식점체, 숙박업체 바가지 자정 결의대회와 추어탕 가격 인하 등을 통해 바가지 없는 K-푸드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사례가 소개됐다.

장수군에서는 해발 400m 이상의 분지형 산악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난 4월 제3회 장수군 트레일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개최, 산악레저의 적지로서 새로운 로컬 브랜드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트레일 발리지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최근 부안군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해 도-시·군간 합동으로 건물 균열 등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대회 홍보와 대회 기간 중 운영되는 시·군 홍보부스가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시·군이 원팀으로 뭉쳐 주요사업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응하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올 연말 시행된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특별실행의 차질없는 준비와 시·군별 특례도 지속 발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만들어 내자"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심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 위해 머리 맞대

전북형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전북연구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공유화 기금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기금 도입과 과제'라는 주제로 관계기관, 전문가, 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관련 공유화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전북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자

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하고자 공유화기금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이 필요해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또한 김대중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번 6월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 공유모델과 방향'을,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은 '전북자치도 공유화기금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공유화기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전북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이동기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 △박재필 군산대학교 교수 △최승호 총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은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 육성담당 △이성훈 전북개발공사 에너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해 공유화기금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에 대

해 적극적으로 토론했다. 또한 향후 전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안도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햇빛과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은 특정 주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성을 띤 공공자원으로서 도민 모두의 것이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소아청소년 백일해 증가 추세

전북자치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백일해 환자가 산발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적기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가 2,416명(6월 17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최근 유행했던 2018년 연간 환자수(980명)를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백일해 환자는 36명(6월 17일 기준)이며, 이중 소아청소년(7~19세)이 28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백일해 환자 발생 양상을 알리고 백일해 발병과 유행차단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 독려 △호흡기감염병예방 수칙 준수 △확진자 감시체계를 강화해 요청했다.

또한, 의료기관에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내원 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접종시기가 되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의심환자에게는 백일해 진단검사

실시 및 관찰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백일해 예방·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이명옥 전북자치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영유아기에 접중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소아청소년은 불안정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친구, 가족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는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호흡기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이 특징이다. /이만호 기자

RIS와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전북자치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자율과제 공모

전북자치도가 학교와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초등학생들에게 기초와 차별성을 둔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 지역혁신사업(제·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자율과제 공모를 이달 26일까지 진행한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일부 도내 초등학교(143개)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고,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413개)를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도내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5개 늘봄학교 프로그램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RIS산학협력단은 지난 12일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에서 공모에 대한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

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자치도 RIS 전담기관인 JB자산학협력단은 오는 26일까지 과제를 접수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7월 5일까지 최종 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과제는 도내 초등학교의 수요조사를 거쳐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광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RIS 자율과제와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도와 도 교육청이 연계·협력하는 첫 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도는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완주군 공고 제2024-1043호

완주 군관리계획(전라축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안) 열람공고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630번지 일원의 완주 군관리계획(전라축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완주 군관리계획(전라축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위치	면적(㎡)	최 소 면적	비고
폐지	①	전라축산 산업유동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봉면 봉산리 630번지 일원	54,932(갑)54,932	-	완주군 고시 제1995-96호(1995.08.3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전라축산 산업유동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 폐지 -면적: 54,932㎡ → 0㎡ (갑 54,932㎡)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정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폐지)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1	계	54,932		54,932	
	A	37,467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35,376	동물관리시설구역
			비봉면 봉산리 630번지	58	
			비봉면 봉산리 634번지	2,033	
			비봉면 봉산리 630번지	2,645	
	B	17,465	비봉면 봉산리 631-5번지	13,541	폐기물처리구역
		비봉면 봉산리 632번지	1,188		
		비봉면 봉산리 634번지	91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A	-획지계획 폐지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정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폐지
	B	-획지계획 폐지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정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폐지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폐지)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1	A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건폐율	-기준: 60% 이하, 허용: 60% 이하
		용적률	-기준: 150% 이하, 허용: 150% 이하
	B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폐율	-기준: 60% 이하, 허용: 60% 이하
		용적률	-기준: 150% 이하, 허용: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12m) 이하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A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폐지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정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폐지
	B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폐지	-부여육종 전라축산지정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폐지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5일간(공휴일 포함)
3.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농업축산과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 농업축산과(☎063-290-3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완주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